**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사순절:** 십자가의 은총과 신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ㆍ나라주일:** 예배 후 나라 별로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ㆍBeginn der Sommmerzeit:** 다음 주일, 한 시간 당겨집니다.

**ㆍ세례 신청:** 종려주일에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ㆍ17-1 말씀일기 교실 수료자:**

김종권, 김학순, 서희정, 신상희, 유근임, 이은지, 조선형

**ㆍ헌금증명서:** 재정부(김한진, 백능현)에서 받아가세요.

**ㆍ스펙트럼교회 공식 설립예배:** 2017년 4월 2일 11시, Kaiserswerther Markt 32

**ㆍ지난 주 출석:** 임지후-지영 자매

**ㆍ병상:** 한정우 집사 부친

**ㆍ생일:** 구봉환, 김지우, 김성수, 조재인

**◆ 말씀일기 일정**

일/민11:1-15 월/민11:16-25 화/민11:26-35 수/민12:1-16

목/민13:1-20 금/민13:21-33 토/민14:1-10 일/민14:11-25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34독)**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3월 19일** | **3월 26일** | **4월 2일** | **4월 9일** |
| **예배기도** | 백능현 | 김학순 | 김평님 | 권순아 |
| **말씀일기** | 김좌겸 | 강일구 | 이미전 | 최지혜 |
| **안내위원** | 예배부, 정기승 | | 예배부, 신형만 | |
| **헌금위원** | 예배부, 김다니엘 | | 예배부, 김좌겸 | |
| **애찬봉사** | 나라주일 | 밥상 셋 | 밥상 넷 | 밥상 다섯 |

34-12호 2017년 3월 19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1:17)

**담임목사/ 손교훈**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협동목사/ 이광열** Mike Lee

☏ 0211-4166 3284 HP. 01577-388 7498

**교육목사/ 이재용** HP.0157-5346 6942

주일 1부 예배: 12:15

주일 2부 예배: 14:00

주일 유초등부 예배: 14:00

주일 청소년부 예배: 14:00

금요기도회: 20:00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Eingang…………………………………………………………………………………......... | 다함께 |
| ※송영/Eingangslied ……………………………………………………………………………… | 찬양대 |
| ※찬송/Gemeindelied …………………………… 23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126번………………........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290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 백능현 집사 |
| 말씀일기/Bibeltagebuch……………………………………………….............................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마태 26:69-75…..….....…............ | 김좌겸 집사  다 함 께 |
| 찬양/Loblied .......……………………………………………………………………….......... | 찬 양 대 | |
| 설교/Predigt ………………………………. **어허 베드로** ….…………………… | 손교훈 목사 | |
| 찬송/Gemeindelied ……......………………… 294장 ……………………………  합심기도/Gebet ………………………………………………………………………………  봉헌/Kollekte……………………………………………………………………………………… | 다 함 께  다함께  인 도 자 |
| 교제와나눔/Bekanntmachung……............…..................................................... | 다 함 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민8장 ‘정결한 일꾼’ ◈**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6) 고 명하셨다.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11)려서 회막 봉사를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요제는 화목제물 중에서도 기름과 가슴 부위를 따로 떼어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뜻으로 드리는 특별 제사이다. 레위인은 이 같은 정결예식을 통하여 스스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되어(18),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대하며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한 일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렇기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온 교회도 함께 잘 준비하여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다. 서둘러 움직이기 보다,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는 온전히 주의 것’임을 고백해야 한다. 나부터도 그렇다. 목사가 하는 일은 그 자체로 거룩해 보인다. 하지만 그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내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는 일이 우선인 것이다.

또 하나 내 눈에 띄는 대목은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했다는 사실이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10). 한국교회에서는 특히 이 안수 문제로 복잡해 지는 경우들이 많다. 여성안수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목사 임직식 때 장로가 목사에게 안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등. 하지만, 안수를 꼭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엄청난 권위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등장하는 ‘안수’에는 ‘위임’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당신이 우리입니다. 당신에게 우리 모두를 위임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 해 본다. 언젠가 기도회 중에 내가 교우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 보면 어떨까! ‘당신이 우리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벌써 행복하다.

**◈절기 및 설교 본문 예고 ◈**

|  |  |
| --- | --- |
| **3월 19일** | 사순절 셋째 주일 마 26:69-75 |
| **3월 26일** | 사순절 넷째 주일, Beginn der Sommmerzeit 마 27:1-10 |
| **4월 2일** | 사순절 다섯째 주일 마 27:11-26 |
| **4월 9일** | 종려주일, 세례식 마 27:27-44 |